

VD Radar

벤
치
관
련

NEWS

정 부 , 中 企 정 책 총 력

노무현 대통령은 5월 17일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 격려사에서 "참여정부가 향후 중기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드라이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은 과거 정부와는 분명 다르게 펼쳐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권 이후 중소기업 정책이 없었던 때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문제가 중소기업과 다 연관돼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나온 정책들이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무원들은 연말에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며 강력히 압박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실효성 낮은 정책, 일부 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최대한 배제할 것임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이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7일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잇따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업체가 정부 지원책의 효과를 좀더 체감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산 자 부 , 대 기 업 과 중 소 기 업 상 생 협 력 에 합 의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풀기 위해 '성과 공유제'를 한국전력 등 공기업부터 시범 도입한 뒤 확산시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소기업 공동기술 개발에 900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파견 등 협력사업에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성과 공유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10년 이상의 중견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1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동부와 협의하는 등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원활한 투자자금의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본출자 제한을 기존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며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2조 2150억원 등 앞으로 5년간 1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삼성도 무이자 시설투자 지원 등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LG는 공동기술 개발과 해외동반 진출을 모색하며, SK는 중소기업에 상담 제안부터 컨설팅·교육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 자 부 , 2005년 도 우수 제조 기술 연구 센터 11 개 지 정

산업자원부는 유망기업부설연구소 11개소를 2005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신규 지정했다. ATC사업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에게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1개 센터를 포함해 총 71개 ATC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27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ATC로 지정된 곳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는 파이오링크(차세대 보안 스위칭 기술개발)와 미리넷(통신, 방송 융합형 광가입자(FTTH) 전송 시스템 개발) 2곳으로 각각 3억 5천만원, 4억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 통 부 , ' 10 년 후 I T 비 전 ' 수 립 나 선 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포스트 IT839' 전략으로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를 예측해 이에 따른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IT 비전 포 넥스트 디케이드'를 연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다음 10년의 IT 비전’이라는 뜻의 ‘IT 비전 포 넥스트 디케이드(IT vision for next decade:이하 IT 비전)’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IT로 인한 미래의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차식 정통부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은 “IT가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사회현상 분석의 틀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IT 비전의 취지”라며 “민간전문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IT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제시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략기획관실과 IT메가트렌드(미래학) 연구를 주도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실무진을 꾸리는 한편, 국내 각 분야 저명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 통 부 , 한 · 미 정 보 통 신 기 기 M R A 체 결

정보통신부는 한·미간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했다. MRA는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 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교역국간 기업의 시험·인증비용 절감과 인증취득 기간 단축으로 제품의 국경간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자유무역제도다.

MRA는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체결한 MRA는 정보통신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기준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 기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는 국내·외 시장 환경 추이를 봐가면서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간 MRA 체결로 시험기관 허가(지정)기관인 정보통신부 전과연 구소는 국내 정보통신 적합성 시험기관을 미국의 시험기관 허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FCC에 통보해 시험기관을 승인받게 된다. 미국의 국립기술표준원(NIST)은 국내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번 체결로 국내에서의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결과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으로 휴대폰, 기타 정보기기 등의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거 20일에서 약 5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대미 수출촉진과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중 기 청 , 지 방 대 와 공 동 으 로 패 키 지 형 창 업 지 원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기술력이 뛰어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에서 자금, 경영컨설팅까지 지원 하는 패키지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6월 8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지방대학은 한성대(서울), 부산대(부산·울산), 경일대(대구·경북), 남부대(광주·전남), 한국외국어대(경기), 인천대(인천), 강릉대(강원), 충주대(충북), 전주대(전북), 인제대(경남), 한남대(대전·충남) 등이다. ‘기술창업 패키지 1000’은 신기술이나 첨단기술 등을 보유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창업·교육 자금, 컨설팅, 경영·기술지원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전문창업교육은 창업기초와 업종특화교육, 현장실습 등 총 200여 시간으로 구성되며, 창업과 경영분야 전문가들이 교육생의 책임 멘토가 되어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인별 창업단계와 업종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신용대출 혜택을 받게 되며, 보육센터 입주 연계, 창업절차대행, 컨설팅, 경영·기술서비스가 제공된다.

중 진 공 , 중 소 기 업 I T 화 추 가 지 원 실 시

정보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e-비즈니스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에서는 일부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분야는 공급망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에 컨소시

VD Radar

벤
처
관
련

NEWS

업을 구성하여 협업적 IT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컨소시엄 지원 분야와 모기업에서 협업적 IT화 시스템이 가동 중인 경우 이와 연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하는 협력사 지원 분야이다.

6월 13일(월)부터 6월 24일(금)까지 2주간의 접수기간을 통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범위는 기 지원내역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련 교육, 컨설팅, 커스터마이징 소요비용의 50% 범위 이내이며 특히 컨소시엄 지원 분야의 경우 개별 컨소시엄 당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컨소시엄 지원을 통한 대기업의 참여 유도로 대기업의 우산 하에 놓여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
성
벤처

NEWS

여성벤처기업과 한국전력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는 5월 27일 공공기관과 여성벤처업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강구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한국전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 김기학 자재처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팀장, 전자통신처 통신계획팀장, 자재처 계약팀장, 정보화추진처 시스템기술팀장 및 각 발전회사의 구매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여성기업의 납품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한전의 중소기업사업 프레젠테이션, 한전의 공급자 등록 안내, 발전회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건의 사항 청취 및 의견교환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진우시스템 등 한전납품과 관련 있는 여성기업 14개 업체가 참석하여 관련제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실시했다.

행
사
·
사
업

NEWS

SEK2005

THE 19TH SOLUTION & CONTENTS EXHIBITION OF KOREA

개최 목적

-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출품업체 상호간 정보교류 확대 및 이를 통한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
- 미래의 먹거리 발굴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기여
- 정보화 확산을 통한 통한 국민생활 향상 및 합리적 사회환경 조성

개요

- 개최일시 : 2005년 6월 22일(수) ~ 25일(토), 4일간
- 개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 개최장소 : 코엑스 1층 태평양관
- 주 최 :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 주 관 : 전자신문사

주요 특징

- 해외 유력지 IT 전문기자(약 50명) 초청: International Press Lounge
- IT39와 연계한 미래의 먹거리 제시
- IT, 다시 희망을 쏜다'를 모토로 IT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 제시

특별 행사

- U-Korea Vision Conference : 산업발전과 선진 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코리아 비전의 실천 전략 모색
- 모바일 페스티벌(MoFes) : 무선인터넷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로 최신 모바일 서비스와 기기, 콘텐츠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International Press Lounge 운영 : 해외 유력지 IT 전문기자를 초청하여 세계 각지에 IT Korea를 소개하는 기회 마련
- IT Opportunity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 : 해외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미팅 및 해외 진출방안 소개

전시 품목

디지털 가전, 통신·네트워크, 차세대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모바일 핵심기술, 컴퓨터 주변기기 및 기술 서적, 관련 소모품, 교육기관 등

문의처

- 전화 : 02-2168-9332 · 팩스 : 02-2636-8225
- E-mail : sekmaster@etnews.co.kr, wjhong@etnews.co.kr



▲ 2005년 5월 24일 헤럴드경제 8면
실패한 기업인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한다는 목적으로 실시 중인 '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와 관련, 협회는 도덕성평가기관으로서 공정한 기준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제도가 건전한 벤처생태계의 한 기능을 말도록 하겠다는 협회 조현정 회장의 기고문

◀ 2005년 5월 19일 서울경제 1면
 지난해 발표된 벤처활성화정책이 코스닥시장과 벤처캐피탈 지원책 등 성장단계 기업 중심의 정책에 이어 사업 초기 단계 기업의 투자유치를 고취시킬 수 있는 '2차 벤처 대책'을 검토 중인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보도한 기사

대 덕 벨 리 5 대 유 망 기 업 확 정
 대덕벨리를 책임질 5개 유망기업이 확정됐다. 대전시는 최근 대덕벨리 선도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응모한 15개 업체를 놓고 심사를 벌여 리얼타임테크, 뉴그리드테크놀로지, 디씨아이, 한빛EDS, 넷코텍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5천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이 지원금은 업체사정에 따라 해외마케팅 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업체홍보, 마케팅, 비즈니스,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대덕벨리를 대표할 수 있는 리딩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연매출 10억~30억원 규모로 국내보다는 세계시장 진출을 목전에 둔 수출지향형 기업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제2벤처부 조성사업과 연결한 선도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성장 가능 유망업체를 적극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공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스타기업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장가능성 및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성장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자금과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스타기업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